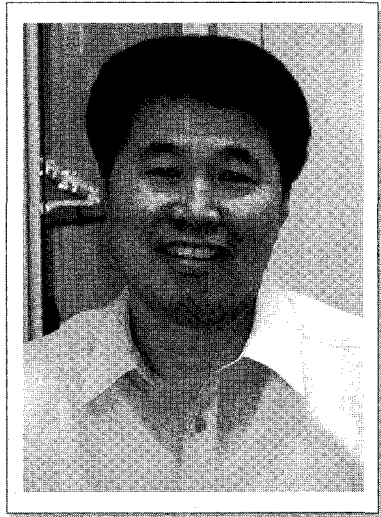


●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과감하게 뱉고, 확실하게 잡아라!



김 병 오

전국발명교육연구회 회장
(inv.or.kr/ajukbo@hanmail.net)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머리 속에서 맴돌면서 오랫동안 묵은 아이디어! 그리고 웬지 대박을 터뜨려 줄 것 같은 환상을 갖게 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과감하고 빠르게 '훅!' 뱉으라고...

그러나 길거리를 가다가 '왜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 경우, 또 화장실에 앉아 '아! 이거다' 하는 아이디어는 지금 바로 출원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고 빠르게 '확!' 잡으라고...

과감히 뱉어라!

'머리가 지끈지끈 하다.'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주위 환경이 나빠지고 또 복잡한 현실의 삶이 머리를 아프게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머리에서 몇 년, 또는 몇 십년을 묵은 녹슨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 중에 케케묵은 아이디어는 없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간직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불신이 커서 과감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머리에 담아두고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굴러다니는 아이디어는 가치가 없다. 그것이 만약 가치있는 아이디어였다면 당신의 머리 속에서 굴러다니는 기간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출원하였거나 상품으로 출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당신의 머리에 담아두고 환상을 꿈꾸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이렇게 환상을 꿈꾸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출원하면 곧바로 특허로 등록되고, 사업화 하면 '대박' 터져서 돈벼락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출원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사람들(변리사나 발명관계자 등)을 못 믿어서 주저하고 있다. 그러다 결국은 머리 속에서 녹슬어 버리고 만다. 혹시 아직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지금 당장 출원을 하거나 변리사를 찾아가 상담을 시작하라! 아니면 이제 그 케케묵은 아이디어를 과감히 뱉어라! 케케묵은 아이디어를 털어내야 신선하고 반짝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될 것이며, 지끈지끈하던 머리도 시원해지고, 표정도 밝아지게 될 것이다. 또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 눈동자는 더욱더 맑고 반짝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털어낸 후에 거울을 보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활력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뱉고, 또 채우는 일이 발명의 사이클이다.

실용신안을 확실하게 잡아라

1999년 7월 1일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권리화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권리의 보호정도와 행사방법에서 특허법과는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소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은 기술발전의 가속화에 힘입어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사업화 또는 실시되고, 그 제품의 라이프사이클도 2~3년으로 단축되는 추세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실용신안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간단한 기초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을 허용하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기술평가에서 등록 유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즉 실용신안을 출원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이 가능하여 비용이 크게 절감되며, 조속한 권리 획득으로 다양한 모방에 대처할 수 있다. 다만 간단한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한 후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부실권리의 발생이 예견되고, '권리의 조기부여'로 출원에 대하여 보정 또는 분할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허와는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서 동시에 특허도 출원하는 이중출원제도, 즉 특허와 실용신안, 실용신안과 의장 등 두가지 방법으로 출원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면 양 제도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하게 잡아라

출원을 한 자신의 권리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부분을 모두 채워 출원되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여 온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 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조항은 출원할 때 타인이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내 권리 범위(명세서 청구항)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출원했다고 모든 권리가 다 저절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범위, 즉 현실에서 사이버 상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상, 또는 현재 생산되는 모든 물건의 종류에 다 적용하느냐를 결정하여 출원하고, 출원 후에도 그 범위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밝혀지면 곧바로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출원중에 있는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타인이 모방하여 침해하는 경우는 '조기공개제도'를 활용하여 등록 전이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기공개 제도는 출원 중에 있는 권리를 타인이 침해하여 이를 제재하고자 할 경우, 특허청에 조기공개 제도를 신청하여 출원내용이 공개되면 권리자가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는 권리와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제도이다.

지난 6월 12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기아자동차가 싸구려 메이커의 위치에서 벗어났으며 중형 SUV인 2003년형 소렌토는 그 중 최고의 작품'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렌토가 동급 SUV인 지프 그랜드 체로키나 닛산 패스파인더, 도요타 하이랜더 등에 비해 손색없는 사양을 갖추고 있고, 특히 실내 공간은 가장 넓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하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좋은 자동차라고 극찬을 받은 소렌토가 미국 상륙 당시에는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일화를 가지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소렌토(SORENTO)'로 미국 수출을 시작했던 당시, 미국 특허청에 '소렌토(SORRENTO)'라는 이름으로 이미 보트회사가 등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거부당한 것이다. 기아자동차가 '소렌토'라는 차종을 개발하려고 계획했을 때, 이미 미국 시장을 비롯한 세계수출 시장을 고려하여 수출이 예상되는 지역의 자동차 브랜드를 조사하여 이에 대처했어야 했다. 지금처럼 이미 차 이름을 결정하여 시판하고 있는 경우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동일 브랜드로 미국시장 수출이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모든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그 당시 기아자동차는 과거처럼 수출되는 자동차 브랜드를 다르게 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모색 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지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출원 당시 주변특허, 즉 '내 권리를 이용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새로운 권리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여 특허청구 범위로 지정하느냐?'가 내 권리를 완전하게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권리는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노하우는 위험하다

자기 기술을 특허 출원하여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보호하는 것을 노하우(know-how)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하우는 비밀리에 간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타인이 그 노하우를 알아차려 먼저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그 노하우의 권리는 타인의 것이 된다. 이렇듯 노하우로 기술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모든 노하우는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출원하지 않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좋은 반응을 보이면 곧바로 출원해야 자신에게 그 권리가 주어진다.

인터넷 촛불 아이디어를 낸 S모씨의 사례를 보자. '인터넷 촛불'은 2001년 1월 한 지방대 벤처전문대학원에서 벤처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던 S모씨가 발명한 일종의 사이버 문화운동이었다. 즉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한 자루의 양초처럼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자며 자신이 운영하는 '캔들러브(candlelove)' 사이트를 통해 문화운동을 시작했다.

네티즌들의 사이트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양초와 촛불의 크기가 변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큰 호응을 얻기 시작,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와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희생자 추모물결이 번진 최근 3개월 동안 회원이 2만여명이나 늘어났다. S씨는 처음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했을 당시에는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S씨는 이러한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타들어 가는 양초의 구현방법'이라는 이름으로 특허 출원 중이다.

이처럼 출원하지 않은 아이디어도 반응이 좋은 경우 곧바로 그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즉 특허청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특허나 실용신안, 의장, 상표)으로 출원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박'이 터질 것 같은 아이디어를 왜 머리 속에 담아두고 있는가? 과거처럼 정보화의 개념이 흐린 시절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어제의 정보가 오늘이 되면 새로운 정보에 묻혀버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시대가 아닌가?

자신의 주변을 둘러 보라! 아직도 케케묵은 아이디어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과감하게 뱉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준비를 하라!

다시 한번 둘러 보라! 진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내가 담아야 하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고 있는가!